

식민지·분단체제의 민족내적 인자

강연초록 역사문제 연구소 주최 '친일파를 다시 본다'

본고는 지난 4월23일 오후7시 역사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친일파를 다시 본다'라는 제목하에 친일파의 존재양태와 구조적 성격을 밝힌 서종석(성대교수·역사학)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의 강연을 발췌한 것이다.

이에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못한 친일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자 한다.

(편집자)

한국은 근대사회·근대민족국가 형성을 발전시켜야 할 시기에 반(半)식민지·식민지로 전락하였고, 식민지에서 벗어나 민족국가·현대사회를 건설해야 할 시기에 민족의 분열과 국토의 분할을 초래한 분단체제를 맞이하였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사 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면서 제국주의 세계 분할정책 및 세력 균형정책의 희생물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바로 제국주의 침략에 호응, 협조하여 반식민지·식민지·분단체제가 되는 데 주구노릇을 하거나 협력하였으며 또한 그것을 유지하는데 적극적·소극적 역할을 한 것이 친일파이다.

따라서 한국 근현대사를 파악함에 있어 외적인자가 강대국이라면, 친일파는 그들의 민족적 추동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친일파가 새롭게 부각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친일파가 반식민지·식민지하에서 반민족행위를 하고 물질적·자본주의적 반정을 꾀했다면 친일파의 문제는 과거의 일

미제의 식민유지정책 -친미파로 흡수돼 분단체제·극우반공이념으로 재생산 거듭

문화·경제계의 지도층이 되었다. 또한 그들은 해방직후부터 단정은 등을 벌여 분단의 내적요인을 이루었고, 분단체제의 지주로서 40년간 민족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반민주적 파쇼적 반동일세력으로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을 꾀하는 세력이었다. 여기에서 친일파와 친미파와의 상관관계를 구체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

친일파는 대체로 친미파와 겹친다. 1905년까지 한국의 친미파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미국인 선교사나 미국의 대한정책은 일본의 침략정책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었다. 20세기부터는 오히려 친일파의 문제는 과거의 일

로만 남는데 머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해방후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친일파는 해방이후에 청산되기는 커녕 일제때보다도 한단계 높아진 지배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그들은 권력엘리트였으며 사회·



캠퍼스 문화인 **따스한 인간미가 넘치는 글모임** — '청맥' 회장 김세훈군을 만나

현재 등록금투쟁을 학생들과 더불어 가열차게 꾸려나가고 있는 수원 문화동아리 '청맥'의 회장 김세훈(회계, 3)군.

지난 89년 '문화사상연구회'로 꾸려진 '청맥'은 올해부터 순수 문예창작동아리로 전화됨으로써 서서히 그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학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동아리와 함께 자주문에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김군은 작년까지는 사회과학세미나를 위주로 동아리활동을 함으로써 창작물에 대한 움직임이 부분적으로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경회 학생들의 생활과 사랑, 투쟁을 형상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주기적인 창작집 발간과 대중제 때 사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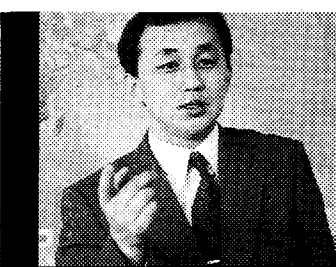
및 시낭송회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를 분주히 하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 전태일열사의 평전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새로운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청맥'에 가입했다는 그는 친밀하고 따스한 인간미가 넘치는 동아리 분위기때문에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해올수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아직까지는 실천력이 부족하다며 그러나 학생들과 공유할수 있는 문학으로써 함께 투쟁해 나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기습 뿌듯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약 2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청맥'은 두 분야로 나뉘어 신입생들은 일기, 편지등의 생활문, 2, 3, 4학년은 창작작과 창작시합평회를 가지는데, 이번 교육재정 확보투쟁 기간에는 학생들이 투쟁과정에서 겪는 집안과의 갈등을 소재로 창작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시를 벽지로 학생들에게 공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 문학은 생활속의 솔직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989년 1월 입사 해외사업부 동유럽지역 담당

김철환氏의 “7시간 늦게 가는 시계”

인간·지구에 꿈·행복을...①

1989년 1월 입사 해외사업부 동유럽지역 담당



영화평 풍네프의 연인들

소문이 무성한 영화 '풍네프의 연인들'이 드디어 국내 관객들을 만났다. 감독 레오 카라의 명성이나 한화 250억원 상당의 제작비, 이미 관광 명소로 된 대형 세트 제작과 제작자3명의 파산 등의 이야기거리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었고 매스컴의 홍보효과에 힘입어 관객 동원이 초반에는 성공적이라고 볼수있다. 터미네이터식의 휴머니즘과 사랑과 영혼의 사랑에 익숙한 국내 관객들에게 이 영화는 신선한 파격이 아닐 수 없다.

이 영화에 대해서 거개의 평들이 단발의 갑탄사인이란 무한한 이유를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해할 것이다. 사실 어떠한 미사여구도 이영화의 완성미와 이 영화를 찍고 연기하고 제작한 사람들의 열정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물을 감싸는 빛과 어둠의 양면성이, 풍네프파라에서 파라라는 도시로, 도시로 상징되는 동시대의 어둠과 찬란함으로 점층되는 이영화에는 종합예술로서의 영화의 모든 묘미와 비전이 들어 있다.

풍네프파라에는 휘황한 파리의 불빛속에 공존하는 빈곤과 절망, 존재의 외로움, 더럽고 추레한 웃과 꾸미지 않은 인간에게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영혼의 순결함, 그리고 영혼의 기갈을 달래주는 값싼 포도주, 그리고 거기에 노래가 흐르고 향기배어나오는 사랑이 있다.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느냐. 뿌피 부르조아 미셀은 연인에게 버림받고 점차 시력을 잃어가는 절망감에 모든것을 버리고 거리를 떠도는 화가. 세느강 아홉번째 다리인 풍네프까지 흘러와 거리의 곡에서 알렉스와 부랑자 한스를 만난다. 시력이 점점해가는 미셀의 마지막 모델로 응한 알렉스는 미셀의 사랑의 상처를 알게 되고 점차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화려한 독립기념일 폭죽속의 파리, 도시 전체에 음악과 불꽃이 흐르고 두사람은 춤춘다. 서로의 상처와 절망이 절박하게 맺어지고 알렉스는 사랑의 고독과 불만에 휩싸이게 된다. 파리 전역에 미셀을 찾는 포스터가 나붙자 알렉스는 자하철에게, 거리에, 곳곳에 붙은 포스터를 붙여 우며 거리를 행한다. 보람도 없이 미셀은 떠나고 절망한 알렉스는 방화범으로 실

문화단신

‘노랫사’ 노래공연

‘노래를 찾는 사람들’은 제10회 공연으로 한국 근·현대 노래 80년사 ‘끝나지 않는 노래’를 지난 21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대학로 ‘화전’ 소극장에서 갖는다.

일제강점기에서 각 시대의 특징적 문화현상과 시대상황, 그속에서 유행한 노래들을 주요물로 한 이번 공연은 그러한 사실들을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닌 고급음악·대중음악·민중음악의 세 갈래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짚어간다.

한편 이번 공연은 매일(단 월요일 휴) 오후 4시30분과 7시30분에 공연된다. <문의:338-9948>

‘남비곰비’ 창단공연

순수 연극단체 ‘남비곰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5월14일까지 매일 오후 4시30분과 7시30분, 2

회에 거쳐 대학로 흥사단 지하층에 위치한 총동 1 소극장에서 창단공연 ‘해원’을 선보인다.

작품 ‘해원’은 월북작가 함석헌 선생의 작품으로 194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바 있다.

간간안내

사랑할 것이 많이...

강경대열사 1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강경대열사의 죽음을 그린 4.26창작단의 시집 ‘사랑할 것이 많이 남았는데’가 도서출판 ‘힘’에서 발간되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시집은 제1부에서 강경대열사의 아버지가 감옥에서 쓴 세를 실고 있으며, 제2부는 익명의 시들을 바탕으로 한 작가가 새롭게 창작했다. 제3부는 조직창작으로 열사의 죽음에 주위에 있던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의 삶속에 어떻게 녹아 들어갔는지를 담았다.

가을詩 겨울사랑

전제승씨의 첫 시집 ‘가을詩 겨울사랑’이 시문학사에서 출간되었다.

제1부 ‘제비를 기다리며’ 제3부 ‘사랑이 산다는 것은’ 등 6부로 구성된 이 시집은 전제승씨의 데뷔 당시 시편들을 모은 것으로, 하늘, 바다, 들, 사랑, 꽃, 그리움 등의 시어를 사용 그 시의식이 하늘로 향해 자연공간으로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망의 사람들

이른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망의 사람들’이 도서출판 ‘산하’에서 발행되었다.

사랑을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부르는 작가의 감성이 오직 망에서 산다는 죄로, 자식을 낳고 누구를 사랑할 본능마저도 빼앗겨버린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슬픈 아름다움으로 그려내고 있다.

헝가리발 프랑크푸르트행 여객기에서 -

헝가리 부다페스트공항. 곧 이륙할 09:00발 프랑크푸르트행 여객기 내에서 지난 열흘간의 출장을 가만히 정리해봅니다. 다뉴브 강변을 몇번이나 지나치면서도 신선한 강바람 한번 맘껏 쉼어보지 못한 만큼 바쁘게 보낸 10일간의 헝가리 생활, 그리고 그 이전의 많은 나날들 -

처음 동유럽 수출팀에 배치받았을때 -

1989년 1월 신입사원 연수를 마치고 배치받은 「현대자동차 해외사업부 동유럽팀」, 당시엔 ‘아직 수교도 안된 공산권으로 과연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 상태였기에 어떤지 마음 한구석이 점뻘했었죠.

마침내 소련으로 체내 수출!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0년 1월, 마침내 우리는 당시 공산권의 대국 소련에 체내 수출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뒤이어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이젠 동유럽 전역에 걸쳐 우리의 자랑스런 차가 달리지는 곳은 없습니다.

프랑크푸르트발 서울행 여객기에서 -

곧 김포공항에 착륙한다는 기내 방송.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벌써 환한 아침인데 손목시계는 새벽 2시가 조금 지나 있습니다. 아직 세 시계만 헝가리 시간이었군요. 시계를 다시 7시간 앞당겨 놓으며 이제 한국에서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차, 세계의 차 —

HD 現代自動車